

꽃과 꽃 사이의 오월

5·18 27주기 추모시 전 속

어느 햇새벽, 꽃과 꽃 사이
이슬바다에 떠있는 눈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눈물을 거두어 흉터에 묻어둔 용이를 만져보았습니다
깃이저진 꽃잎에 남겨진 것
처절하도록 선명했던 핏자국은 어느새 찾아들고
타오르는 혼불 속에 빛나는 민주의 영실永實!
분노의 꽃비가 울컥울컥 내리던 시련의 날에
가슴과 가슴을 엮은 꽃들끼리, 맨주먹으로 빛어낸
영원히 씨지 않을 민초들의 열매였습니다
그날의 꽃들은 뒷집 긴 구경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버선 속까지 뒤집어 나눈 선한 이웃
가시면류관에서 솟구치는 보혈이요
뿌리째 뽑혀도 뽑혀도 혼으로 버틴 이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희망이 부러진 등걸에 움터오는 새순처럼
통곡을 넘어선 부활의 꽃이었습니다
누리 누리에 그날의 꽃씨, 꽃씨가 누며
황폐한 자갈밭은 평화의 꽃길이 되고
영실영실 걸어온 꽃들을 열싸안고 추추는
오월의 햇씨가 다습습니다
환한 웃음소리 백두대간 즐기 즐기 적시며 향그러이 퍼져갑니다
(나는 일었다)
고단한 한숨은 한사코 손사래 치시며,
품안의 작은 실음도
살갑게 보듬어주시던 우리 어머니들
잔주름 고랑마다 봉긋 피어나는 고혼 웃음꽃입니다
꽃이여, 고통의 눈물을 화해의 웃음으로 피워낸 장한 꽃이여
승리의 잔을 들어 하늘 푸르게 환호할 축제의 날이여
눈부신 장미의 몸으로 오신 당신과
우리 모두의 피 끓는 오월이여,
핏속에서 피워낸 자유의 꽃이여!

◇전 속 시인 일력
▲55년 장성 출생 ▲전남대 간호학과 졸업 ▲2004년 문학과 비평 등 단 ▲현 나주시 노안면 금안보건진료소장

가슴 아픈 '5·18 대물림'

5·18의 상흔이 한 가족에게 아픔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정신지체 2급 장애를 앓고 있는 주정식(22·선광학교 전공과 2년)씨. 5·18국가공공자인 고(故) 주현노씨의 외아들이며 그가 16일 아버지가 묻혀 있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하지만 정식씨는 어눌한 말투로 "우리 아빠 여기에 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라고 말만 할 뿐 아버지의 묘를 찾지 못했다. 그는 집에 있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간신히 아버지의 묘를 찾은 뒤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어요" "아빠 보고싶어요" 말을 되뇌며 준비해온 태극기를 묘지 앞에 꽂았다.
그는 비록 정신지체 장애가 있지만, 아버지가 어떤 일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왜 민주묘지에 묻혀있는지 알고 있는 듯했다.

고문후유증 사망한 故 주현노씨

정신질환 아들 5·18 묘지 참배

"아빠는 훌륭한 사람...보고 싶어"

5·18 당시 양동시장 점포이었던 아버지는 항쟁에 참여하다 계엄군에게 붙잡혀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간 뒤 전기고문을 당했다. 아버지는 그해 12월 풀려나 집으로 돌아와 다시 양동시장에서 점포생활을 했고, 85년 결혼해 정식씨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나 정식씨가 2살이 되던 해 아버지에겐 갑자기 고문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집안에 불행이 찾아왔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나에게 누명을 씌운다" "OO가 나를 노려본다" "OO가 나를 쫓아온다"며 알 수 없는 말을 해댔고, 결국 증상이 심해져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정식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해지자 어머니는 집을 떠났다. 혼자 남은 정식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품에 맡겨졌으나 경기를 심하게 앓은 뒤 4살 때부터 정신지체장애를 보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녀석지 못한 가정형편 때문에 손자를 제대로 치료할 엄두조차 못했다. 그 사이 정식씨의 증세는 더욱 악화돼 정신지체 2급 장애를 앓게 됐다.
아버지는 이후 정신병원을 수시로 들락날락하다



지난 16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주정식 씨가 아버지 묘 앞에서 태극기를 꽂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006년 6월 병원에서 한 많은 인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정식씨는 어려운 가정환경에 굴하지 않았다. 현재 선광학교 전공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그는 취업 준비를 위해 원예, 포장·조리, 제과·제빵 등의 기술을 익히며 아버지가 못다 이룬 삶까지 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정식씨의 할머니 홍모(72·광주시 북구 임동) 씨는 "아들이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병을 앓다 억울하게 죽고 그 영향으로 손자까지 몸살 병에 걸려 가슴이 저민다"면서 "그래도 정식씨가 건강하게 살면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그나마 위안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아침 한 때 비

아침 한 때 비가 온 후 개겠다.

광주	비온뒤 맑	14~24
목포	비온뒤 맑	14~22
여수	비온뒤 맑	14~22
순수	비온뒤 맑	14~23
해남	비온뒤 맑	14~25
영광	비온뒤 맑	13~24
영암	비온뒤 맑	13~24
고흥	비온뒤 맑	13~24
진안	비온뒤 맑	13~25
완주	비온뒤 맑	14~22
진성	비온뒤 맑	13~22
장성	비온뒤 맑	14~24
의성	비온뒤 맑	14~24
장흥	비온뒤 맑	14~24

5월 17일 (음 4월 1일) ◇전국날씨

서울: 맑음, 부산: 맑음, 광주: 맑음, 대구: 맑음, 대전: 맑음, 전주: 맑음, 목포: 맑음, 여수: 맑음, 제주: 맑음

기상안내전화: 131 <광주지방기상청>
기상안내전화: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최저/최고	14/21	14/25	12/26	13/27	13/27	14/26

5·18 추모제 '하늘도 눈물'

내일까지 강한 바람

5·18 민주항쟁 제27주년 추모제와 기념식이 열리는 17일과 18일 광주·전남지역의 날씨는 구름이 많이 낀 흐린 하늘에 강한 바람까지 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 "추모제가 열리는 17일 오전에는 한 때 비가 뿌릴 것으로 보이지만, 낮부터는 점차 개기 시작해 전야제 행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기상안내전화: 131 <광주지방기상청>

광주 사립외고, 태성학원 선정 될 듯

광주시교육청이 이르면 2009년, 늦어도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자로 호반건설 계열 학교법인인 태성학원(이사장 김상열)이 선정될 전망이다.
16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에 따르면 태성학원과 함께 사립 외국어고 설립 공모에 참가 신청한 광주 모 초등학교 김모(57) 교사에 대해 14일까지 구체적 투자 계획 등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날 현재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김 교사는 "보완서를 제출하지 못한 만큼 불이익(탈락조치)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실상 중도 포기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태성학원 한 곳만을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벌여 이달 말까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태성학원 측에서 시교육청의 미비점 보완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등 적격성을 보이고 있어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태성학원은 앞서 시교육청에 제출한 설립제안서를 통해 광주시 동구청이 현재 공영개발을 추진 중인 동구 선교동에 1만2천평의 부지를 확보, 교실과 기숙사 등 5천400여평의 교육 시설을 갖춰 2010년 3월 개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태경기자 hwangtae@kwangju.co.kr

전남경찰청 28일 옛 서부서로 이전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정봉체)이 48년 만에 광주시 동구 관산동 시대를 마감하고 오는 28일부터 광주시 서구 농성동 옛 광주서부경찰서로 이전한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0억원의 예산을 들인 옛 광주서부경찰서 청사 리모델링과 증축공사가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이전작업을 벌여 28일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17~20일 금남로 등 일부 차량 통제

5·18 민주항쟁 제27주년 기념행사 기간인 17~2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등 시내 일부 도로의 차량통행이 통제된다.
"5월 체험 한마당"과 전야제가 열리는 17일에는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옛 광주은행 4거리(금남로 1~3가) 구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 통제가 이뤄진다.
19일에는 금남로 1~3가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면 통제되고,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차선을 부분적으로 막는다. 2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남로 1~3가 전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오후 6시부터 무등경기장~광주역~옛 전남도청 앞까지는 '차량시위 재연' 행사로 1시간 동안 부분 통제된다.
한편 광주시는 17~18일 5·18 추모제를 위해 광주시 북구 장동동까지 운행되는 '지인 35번' 시내버스 노선을 국립 5·18 민주묘지까지 연장하고 '518번' 노선을 기존 39회에서 49회로 증회하기로 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면학분위기 가장 좋은 학원 / 1교수 1과목 전문강사진 / 주말보강없이 2개월 책임 완성

9월 9일 경찰 시험대비 합격특강

전/의경 폐지확정 2008년부터 채용규모 5,000명 이상 증원(예상) 지금이 기회! 개강 6월 1일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후 서울경찰전문학원 북구청 맞은편 (062) 251-7959

웰빙시대의 뉴-리더

국기농산물품질관리사

전국 유일의 실 강의

개강 6월 2일(토)

(토, 일 주말반)

- * 공무원 기산점 3%, 농협중앙회 5%, 지역농협 10%
- * 관련업체 자격증 소지자 채용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농림부에서 자금 지원
- * 취업처: 농협,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업체 등

-1,2,3회 합격자 90% 이상 취업-

A+ 현대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옆) (062) 236-2467

"속보" 전남 9급 교육행정직 하반기 시행확정 채용인원 000명 =

7.9 급 공무원 대비

행정직	교육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복합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토목직	건축직
-----	-----	-----	-----	-----	-----	-----	-----	-----	-----	-----	-----	-----

• 서울 7월 8일 • 전남 6월 23일 • 전북 9월 8일 시행 =

개강 6월 1일 주야(현직)반 모집 (현재 상담 접수중)

=46년 전통의 "無等"은 "꼭" 합격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www.mdgosi.co.kr 222-4560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6월 1일 첫진도 개강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본원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2007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합격= 한빛에있다! www.hanbitgosi.co.kr

7.9 급 공무원 올해부터 5년간 5만명 증원

개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합직, 군무원, 교정직, 농업직, 전신직, 보건직, 출입관리직, 기술직

이론반 (2개월 완성) 서울시 문제풀이 (1개월 완성)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6월 1일 (홀/짝수반 매일 첫진도 개강)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062) 234-0234